



# 대학주보



## 대동제 MASTERPEACE:Wonderland 가을의 문을 열다

서울캠 가을대동제 'MASTERPEACE:Wonderland'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캠퍼스 곳곳에 학생 단체와 창업기업 부스가 들어섰고, 노천극장에서는 재학생, 초청 아티스트 공연이 이어졌다. 우리학교 동아리들, 소모임, 단과대별 부스에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한편, 학생공연이 끝난 노천극장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의 패션쇼가 열려 학생들은 자신의 옷을 뽐냈다.

(사진=신정빈 기자, 이서현 기자)

##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22.6:1

조천호 기자 cjsgh1026@khu.ac.kr

2027학년도 수시모집이 지난 16일 최종 마감됐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55.3%에 해당하는 3,006명을 선발한다. 총 67,973명이 지원해 최종 22.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캠퍼스별 경쟁률은 서울캠퍼스(서울캠) 26.6:1, 국제캠퍼스(국제캠) 18.4:1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캠 25.2:1, 국제캠 20.1:1로 총 22.8: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전형별 경쟁률은 ▲논술우수자전형 64.9:1 ▲실기우수자전형 18.5:1 ▲네오르네상스전형 16.9:1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 8.2:1이다.

이러한 논술 쏠림에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부터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는 만큼, N수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이 기존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 것이다. 반면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원 전략을 택한 수험생들이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단위별로는 서울캠 한의예과(인문) 논술우수자전형이 5명 모집에 3,110명이 지원해 622.0:1 경쟁률로 교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국 최고 경쟁률이기도 하다. 국제캠 최고 경쟁률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보컬 분야 실기우수자전형으로 5명 모집에 1,123명이 몰려 224.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도체 관련 학과는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와 평균 경쟁률이 28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우리학교 반도체공학과와 학생부교과전형은 지난해 9.5:1에서 올해 7:1로, 학생부종합전형은 14.2:1에서 12.5:1로 각각 하락했다.

## 미디어학과 교원 · 강의실 부족에 수강난 전공강의 좌석, 학과별 편차 심해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 수강신청 때마다 전공수업을 듣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신문은 재학생 제보를 통해, 미디어학과에서의 전공 수강 어려움을 다룬다.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특정 학과에 국한된 현상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 데이터로 확인한 수강 여건 학과별 최대 2.4배 차이

우리신문이 자체 집계한 26년 1

학기 기준 '1인당 강의 좌석수(수강 가능 인원/다전공 포함 재학생)' 기준에 따르면, 미디어학과는 재학생 683명에 1,557석으로 1인당 2.28석이었다. 반면 같은 정경대학 내 사회학과와 경우, 재학생 237명에 1,145석으로 1인당 좌석수는 4.83석이다. 김태균(사회학2025) 씨는 "교양 먼저 신청하고 여유롭게 전공을 담아도 듣고 싶은 수업이 다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미디어학과와 재학생 수는 사회학과와 3배 가량이지만, 열리는 강좌의 좌석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경대 행정실 조선행 과

장은 "수업 정원은 학과와 수업의 종류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경우, 재학생 316명에 1,709석으로 1인당 5.41석을 확보했다. 미디어학과보다 2.4배 높은 수치다. 정정기간 두 학과에서의 모습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디어학과와 경우 매학기 증원 요청이 이어진다.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이 교수에게 수강을 요청하면, 교수가 이를 행정실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3면에 계속 →

### 사령

#### 명 <정기자>

곽승윤(골프산업학 2025)  
김민지(중국어학 2026)  
김수인(중국어학 2026)  
김재희(사회학 2026)  
김정우(미디어학 2026)  
손재원(시각디자인학 2024)  
신정빈(미디어학 2026)  
오채원(Hospitality경영학 2025)  
이지원(러시아어학 2024)  
조여훈(미디어학 2026)  
조천호(무역학 2023)

2 종합

유웨이 장애에  
수시 원서접수 차질  
우리대학은 경쟁률  
공개 논란 피해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우리학교를 비롯한 56개 대학이 피해 수험생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가 마무리된 가운데 우리학교는 기존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 ‘경쟁률 확인 후 지원’ 논란에서는 비켜갔다.

시스템 장애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발생해 오후 6시 20분께 복구됐다. 오후 6시 원서접수 마감을 앞둔 수험생들이 원서 작성과 전행로 결제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마감을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당초 교육부는 장애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 시간대에 원서를 작성·저장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전산 기록이 확인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를 진행했다.

구제 신청은 지난 16일 마감됐으며, 총 1,588건이 접수됐다. 이 중 388건이 구제 대상으로 결정됐고, 실제 추가 원서 접수까지 마친 건은 250건으로 집계됐다. 구제 대상자는 장애 당시 기록에 남은 대학과 전형, 모집단위로만 추가 지원할 수 있었다.

문제는 마감이 연장된 사이 17개 대학이 기존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경쟁률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과, 정해진 마감시간에 지원을 마친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이후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를 점검하고,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접수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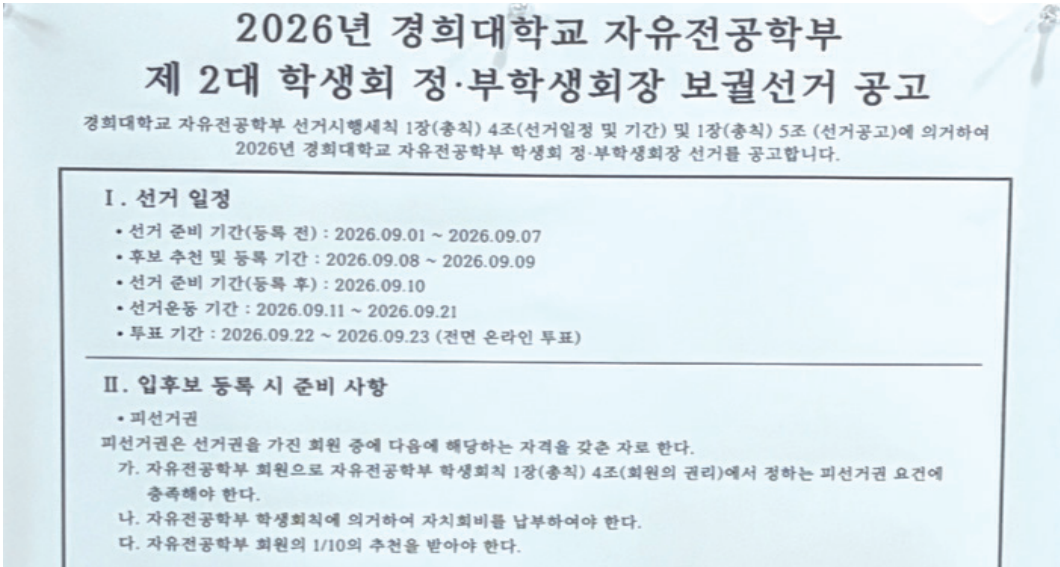
한편 우리학교는 오후 6시 20분까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입학처는 “오후 6시 20분까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 연장 접수에 따른 경쟁률 변화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이지빈(21) 씨는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 마지막 입시인 만큼 수험생들이 이번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경쟁률은 3,006명 모집에 6만 7,973명이 지원해 22.6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모집단위는 논술우수자전형 한의예과(인문)로, 5명 모집에 3,110명이 지원해 6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원서접수 시스템의 장애 원인과 운영·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전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자유전공학부 보궐선거 공고문

(사진=곽승윤 기자)

자유전공학부, 9월 보궐선거  
학생회 구성돼도 중운위 참여는 미정

곽승윤 기자 ksymickey05@khu.ac.kr

【국제】 오는 22일부터 이틀 간 자유전공학부(자전)의 학생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후보에는 결(結) 선본의 도유성(자유전공학 2026) 씨와 황성민(자유전공학 2026)씨가 각각 정후보와 부후보로 출마한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총선거에서 입후보자 미출마로 선거가 이뤄지지 못한 일부 단과대 및 학부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거쳐 지난 3월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다만 자전의 경우, 당시 입후보를 희망한 선본의 제출 서류 미비로 선거가 무산됐고, 현재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비대위는 정식 선거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기에, 대표성 결여 문제가 있다. 도 정후보는 “학부생들의 신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원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전은 이러한 비대위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학생회(총학) 측에 지속적으로 보궐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은 “1학기에 도 자전 측에서 보궐선거 진행을 요청했지만, 선거 절차 및 선거시행세칙의 미비점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다”며 “다만 학생자치 참여의 공백 발생으로 제 15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시행세칙에는 11월 총선거와 3월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만 있다. 이에 총학은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확보를 위해 자전 측에 자체적인 선거시행세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자전 측은 그에 따른 자체 시행세칙을 만들어 제출했으며 방학 중 총학에 의해 확정됐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학생회가 새롭게 구성되더라도 자전의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참여

문제는 남아 있다. 총학생회칙 제 51조 1항에 따르면 중운위 참여 대상은 ‘선거와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선출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시행세칙은 단과대학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학부 단위로 운영되는 자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3월 말 자전의 중운위 참여를 위한 회칙 개정 논의도 진행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자전을 단과대 단위로 인정하고 자전의 중운위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끝내 학생총투표에서 개표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관련기사: 총학생회칙 개정 투표 무산…자유전공학부 중운위 참여 어려워/대학주보 1759호/2026.04.11)

이와 관련 정 총학생회장은 “11월 총선거 전후로 ‘선거시행세칙 개정 TF’를 추진해 자전의 학생자치기구 참여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빠르고 더 가깝게  
대학주보, 이제 Threads에서도!



대학주보 스레드 @khunews\_jubo 팔로우 하시고 학내의 뉴스와 다양한 콘텐츠 만나보세요

## 1면에서 계속 →

조 과장은 “교수가 강의실 수용 인원을 고려해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홈페이지에 증원 관련 공지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김태용(광고학) 학과장은 학생 수요가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다른 교수님들께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김 학과장은 “증원 요청이 너무 많이 있었어서 증원을 안 한 과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형(국어국문학) 교수는 “정원이 75명인데 33명이 수강신청을 했다”며 “증원 문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수강신청 대란  
원인은 교수·강의실 부족

미디어학과와 학생들 사이에선 수강신청 어려움은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됐다. 김 학과장은 교수진 부족을 먼저 거론했다. 미디어학과는 2년 전 교수진을 충원했지만, 당시 퇴임한 교수들의 자리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전체 교수 수 자체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의의 수강 정원을 늘리는 방식은 대안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태다. 김 학과장은 과제와 평가, 개별 피드백에 소요되는 시간이 타 학과에 비해 많은 미디어학과와 특성 상 대형 강의를 개설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콘텐츠 제작과 같은 수업은 강의 중심 수업과 달리 학생과 교수 간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 학과장은 또한 “수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추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구독 비용 등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대학 건물 내 대형강의실이 적은 점도 문제다. 정경대 행정실은 “대형 강의실이 부족해 수강 인원이 많은 강좌는 구 한의대 건물 등 다른 건물의 강의실을 활용하고 있

다” 말했다.

반면 국어국문학과 김양진(국어국문학)교수는 “희망담기 결과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몰릴 경우 더 큰 강의실로 옮기거나 증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

결국 학생들의 수강 수요에 따라 대형 강의를 개설하거나 기존 강의의 수강 인원을 증원하려고 해도 강의실 규모와 교원 수, 수업의 성격, 예산 등 여러 여건이 함께 맞물려 있어 단순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강신청 어려움  
다전공 도입으로 증폭 우려

미디어학과 학생들 사이에선 수강신청이 ‘티켓팅 수준’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음 학기를 기약하는 경우도 있다. 증원 역시 학생이 몰리면서 명쾌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김서정(미디어학2022)씨는 “4학년,전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채원(미디어학2022) 씨 또한 “전공필수 과목의 경우 증원 때도 사람이 워낙 몰려서 증원으로 수강신청을 성공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단과대 행정실은 내년부터 도입될 수강신청 마일리지제가 해당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마일리지제는 학생 수강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일 뿐, 강좌 수 자체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도입된 다전공 의무이수제로 특정학과의 수강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디어학과 김 학과장은 “선이수 과목을 설정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았다”라며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신문은 이러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미디어학과와 같이 특정학과에만 국한된 현상인지 다음 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8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2026 학생대표소통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김수인 기자)

## 2026 학생대표 소통회의 개최

김수인 기자 windsnow07@khu.ac.kr

【국제】학생대표 소통회의가 지난 8일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과대별 시설과 공간 개선부터 학사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및 학교관계자(▲학무부총장 ▲각 단과대 행정실장 ▲총무팀장 ▲교무처장 ▲학사지원팀장 ▲스페이스21사업단장)들이 참석했다. 1부는 각 단과대별 안건 논의, 2부는 총학생회 안건 논의가 이뤄졌다.

외대·공대 학사제도 개선요구  
영어강좌·대체과목 학점 인정  
개선 필요

외국어대학 학생회는 영어강좌 의무 이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학사제도에 따르면 외대 학생은 타 단과대와 동일하게 9학점의 영어강좌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외대에 개설된 영어강의는 5개뿐이다. 외대 이경빈(스페인어학 2023) 학생회장은 중·고급 회화 등의 전공과목을 영어강좌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 김성수 처장은 “현재 학사제도가 단과대학 간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대안으로 외대 내 언어학 과목을 영어강의로 개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과대학은 전공 및 대체 교과목의 학점 인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공대 내에서 복수전공이나 전과 시 기존 전공에서 이수한 유사 과목을 변경한 전공의 필수과목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대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유사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대 행정실 김경희 실장은 “이번 학기 중 민원이 많은 과목을 파악할 것”이라며 “논의를 거쳐 전공기초 과목의 대체 교과목 인정 기준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간 부족부터 노후 시설까지  
개선 요구 이어

공간 부족 및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생명과학대학(생대) 학생회는 1층 라운지 조성과 더불어 노후화된 1층 열람실 개선을 요청했다. 총무관리처 관리팀 김홍률 팀장은 “현재 보수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다만 재원 확보와 본부 유관 부서 협의가 필요해 라운지 조성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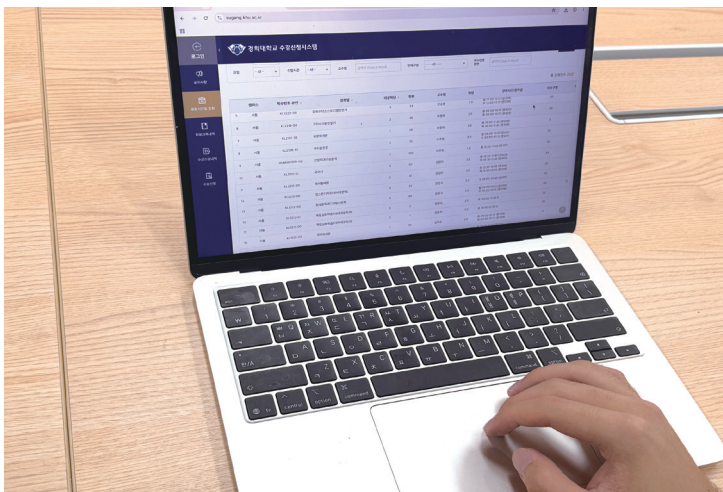
다.

전자정보대학(전정대) 건물의 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전정대 건물은 전정대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소응대), 응용과학대학(응과대) 총 세 단과대학이 함께 사용 중이다. 이에 2018년에는 ‘미래과학관 설립’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재는 부지와 규모, 공간 활용 설계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21사업단 이영주 사무국장은 “미래과학관 시설 건립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겠지만 천억 원가량의 재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 속도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행정실 및 학생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러 단과대학에서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외대는 떨어져 나간 외벽 보수와 석면 여부 점검을 요구했다. 체육대학은 하이퍼포먼스센터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정대 역시 정문 누수로 인한 페인트 벗겨짐, 건물 내부 벽 도색 등 노후 시설과 편의시설 전반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해당 사실들은 인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차차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학과와 재학생 수는 사회학과와 3배 가량이지만, 열리는 강좌의 좌석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진=도은오 기자)

## 4 기획

## ‘명분과 현실’ 엇갈린 세 번의 개편...희미해진 교양의 본질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⑥교육과정 개편

#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고자 한다. 이번 2부 2회차에선 후마의 각 교육과정 개편에서 놓친 점이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룬다.

후마는 출범 이후 크게 세 차례의 교육과정 개편을 거쳤다. 2016년에는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를 중핵교과에 포함하고 독립연구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교육에서 학습으로’를 내걸고 필수교과와 수업방식을 바꿨다. 2024년에는 배분이수 영역과 이수학점을 조정하고 자연과학 강좌 비율을 확대했다.

4년에 1번씩 돌아오는 개편은 후마가 앞으로 어떤 교양교육을 제공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세 차례 개편에서 고민한 후마의 발전방향이 실제 개편 내용과 간극이 있었다는 것이 구성원의 중론이다. 후마 교수진들을 만나 묻은 결과 ▲개편 목적과 실제 교육현장 간 괴리 ▲양캠퍼스 간 거버넌스 및 교육방향 차이 ▲후마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행·재정 지원의 한계 ▲학생 의견 반영 부족 ▲전공과 교양 학점 배분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우리신문은 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개편 목적과 실제 교육현장 간 괴리 ▲후마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각 개편 시기를 돌아봤다.

‘빅문’ 도입 혼선·평가 전환 무산  
개편마다 엇갈린 이상과 현실

세 차례 교육과정 개편마다 후마는 시대 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지만, 개편의 취지가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2016년에는 융복합 시대에 맞춰 자연과학을 교양 교육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를 신설했지만, 대형강의 확대 부작용이 있었다.

2019년에는 ‘교육에서 학습으로’를 내걸고 역량 중심 평가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2024년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고 학생 수요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으로 AI·SW 관련 교과를 확대했지만 시대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첫 대규모 개편(2016년도)의 핵심은 제3의 중핵교과 ‘빅문’ 신설이었다. 빅문은 자연과학을 후마의 교양교육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였지만 이를 실제 수업으로 구현할 교수진과 강의실, 수업 방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대형 강의와 팀티칭으로 출발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행·재정 발전계획안(발전안)에 따라 당시 후마 개설 강좌 200여 개를 조정했다. 한 강좌에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강좌 수를 줄였다. 이에 1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대형강좌는 서울캠 3개에서 58개로, 국제캠 0개에서 6개로 늘었다. 당시 우리신문은 대형 강의가 학생과 교수 간 소통을 어렵게 하고 일방적인 강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100명 이상 대형강의, 서울캠은 2013 대비 19배 증가/대학주보 1563호/2014.03.17.)

빅문을 대형 강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여러 전공의 교수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맡아 가르치는 팀티칭 방식이 있었다. 빅문은 여러 자연과학 분야를 다루는 만큼, 초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업의 해당 부분을 나눠 맡았다. 이과대학 권영균(물리학) 학장은 “처

음에는 교수진 7명이 각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맡아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빅문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한 교수자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권 학장은 “2016학번 신입생부터 강의 대상을 확대하려니 교수진 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수진으로는 신입생 전체를 여러 강좌로 나눠 수용하기 어려워 대형 강의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빅문 대형 강의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팀티칭과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필수교과라는 운영 조건이 맞물린 결과였다. 하지만 이미 후마에서 대형 강의의 소통 문제가 지적된 상황에서 빅문 역시 대형 강의로 출발했고, 실제 수업에서도 교수와 학생 수에 따른 혼란이 나타났다. 2017년 대학주보 설문조사에서도 빅문에 만족하는 학생은 26%에 그쳤다. (관련기사: 제3 중핵교과 ‘빅뱅에서 문명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대학주보 1618호/2017.04.03.)

‘교육에서 학습으로’라는 구호 아래 이뤄진 두 번째 개편(2019년도)은 학생 역량에 방점을 뒀으나, 이를 뒷받침할 평가 방식까지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였다. 당시 후마 재도약을 위한 실행위원회 TF팀이 출범해 기존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자기평가, P/F학점제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 후마 정복철 학장(당시 부학장)은 “2019년 개편에서 제시한 역량 중심 교육의 핵심은 학생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역량을 단순한 암기 시험이나 글쓰기 시험만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양캠퍼스 후마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며 평가방식 전환은 무산됐다. 우리신문에 따르면, 당시 국제캠 후마 학장이었던 김성수 현 교무처장은 “실질적인 시간이 부족해 2020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양캠퍼스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 후마 개편안 본격 시행, 수강 정원 축소·‘세계와 시민’ 신설/대학주보 1643호/2019.03.04.)

2024년은 ‘학생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학점 이수 요건을 완화했다. AI·SW 관련 교과와 마이크로디그리, 예술체험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 변화와 학생 수요를 반영한 신규 과목도 신설했다. 하지만 학생 부담 완화를 이유로 줄인 교양교육 이수 학점은 그 자체로 후마의 역할 및 위상 약화로 이어졌다. 또 신설된 과목 또한 시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학기 우리신문 설문조사에서 2학년 이상 재학생 60.7%가 ‘현재 후마 교육이 인공지능 시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지난 학기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서인(중국어학 2022) 씨는 개편된 교육과정에 대해 “후마 교육과정의 목적은 인간만의 사고와 추론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며 “기술 도입을 넘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적 기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특별기획] “그냥 교양수업 아닌가요?” 희미해진 후마의 의미, 학생 불만은 ‘평가’와 ‘강

의’ 방식에 집중/대학주보 1760호/2026.05.11.) 결국 시대 반영이라는 명목 하에 내실 있는 개선이 아닌 이수 학점만 줄이면서 공통 교양 교육의 입지만 축소시킨 셈이다.

후마 역할 두고 엇갈리는 시각  
“전공 교육의 연장선” VS  
“인간·사회를 향한 사유”

후마를 바라보는 구성원의 시각 차이도 교육과정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 단과대학 전공 교수진은 전공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교양 필수학점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기동 전임 TF팀장은 “전공에서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교양 필수학점이 많다 보니 전공에서 해야 할 것을 많이 못한다는 지적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후마 교수진은 교양교육을 단순히 전공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 전임 학장은 “각 전공 분야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자질을 가르치자고 하면서 후마니타스가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마를 “쉬운 기본을 가르치는 과정이라기보다 깊이 있는 학문을 바라보는 사유 방식과 철학을 담당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6년 빅문 도입이 대표적이다. 자연과학의 주요 개념과 패러다임을 비전공자에게 가르치기 위해 자연과학 전공 교수들이 교육과정 구성과 강의에 참여했다.

5면에 계속 →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정 개편표

| 교육과정 개편 내용 |      |      |      |       |
|------------|------|------|------|-------|
| 구분         | 2011 | 2016 | 2019 | 2024  |
| 공통필수 교과 학점 | 17학점 | 18학점 | 17학점 | 17학점  |
| 배분이수 영역 수  | 7개   | 7개   | 7개   | 5개    |
| 의무 이수 영역 수 | 5개   | 4개   | 4개   | 3개    |
| 시민교육       | 독립   | 독립   | 통합   | 통합 유지 |

# 후마의 다음 개편, 기술 너머 ‘인간의 사유’ 가르쳐야 차기 교육과정 다룰 ‘TF’ 구성은 속도 못내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차기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을 논의할 TF팀 구성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마는 지난 4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월 5일 5차 회의까지 진행하며 ‘AI 시대 미래 대비형 교양교육과정 개편 요구사항’과 기본 구조표 변경 등을 검토해 왔다.

본부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후마 외부 인사를 포함해 TF팀을 재구성하는 것을 제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개편에서 후마가 중점으로 두는 것은 역시 ‘AI’다. 전공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사유와 인식 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겠다는 후마 초기 철학을 지키면서 AI 시대에 걸맞은 교양교육을 제시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직전 개편이 AI 기술 자체에 대한 교과목 도입에 그쳤기 때문이다. 후마는 2024년도 개편에서 SW를 확대하고 AI 과목을 도입한 바 있다. AI가 확산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1학기 기준 후마의 AI·SW 관련 교과목 목록에는 서울캠 21개,



김진상 총장은 “사유 중심의 교양교육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되 본질을 시대에 맞게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학주보 DB)

국제캠 15개로 총 36개 교과목이 포함된 상태다. 이어지는 다음 개편에서는 AI 기술 활용을 넘어 AI 시대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를 기존 후마의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후마 교수진은 AI를 배우는 과목이 아닌, 오히려 AI 시대에서 인간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후마 교양교육연구소 편집위원장인 이기라(사회학) 교수는 “AI 시대에 우리가 성찰해야 할 인간의 특성이 무엇인지 다루는 강좌가 필요하다”며

“AI로 발생할 일자리와 노동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마련할지 고민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 전임 학장 역시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강조했다. 이 전 학장은 “AI를 판단의 도구로 활용하려면 인간에 대한 가치관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선행해야 한다”며 “인간이란 무엇인지 나 자신은 누구인지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모범 사례로 분류되는 카이스트 대학은 전 교과목의 활용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AI시대 교육 전환을 택했다. AI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 고유의 사고 능력을 기르는 ‘AI 프리’ 교육부터 AI 직접 설계 교육까지 3단계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특히 AI 교육의 핵심 기반으로 인문·사회·예술을 제시하며 기초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부 역시 기술 활용을 넘어서 후마의 본질인 사유 중심 교육을 고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2일 열린 신문방송국 기자 간담회에서 김진상 총장은 후마니타스의 현재 과제를 언급했다. 김 총장은 “사유 중심의 교양교육이라는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되 그 본질을 시대에 맞게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 가치·글쓰기·비판적 사고 등 기존 철학은 유지하면서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윤리의식, 인간 중심의 판단 능력을 함께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 문제와 연결된 현장 기반 학습을 늘리고 시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AI를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내재화하는 ‘AI-Native University’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남은 임기, 학생 중심 교육 혁신으로 증명하겠다”/대학주보 1762호/2026.06.08.)

결론적으로 후마의 다음 교육과정 개편은 ‘AI시대 교육전환’을 토대로 교수법, 평가방식, 수업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전환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교양교육의 방향성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사유와 판단 능력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로 집약된다. 서울캠 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AI에 의존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진 시대에서 눈에 보이는 기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4면에서 계속 →

융합교육이 강조되던 당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함이었다. 전공 교수들이 맡게 된 배경에 대해 권 학장은 “학교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빅문을 담당한 이석근(생명과학) 교수는 후마의 일반적인 수업에 대해 “일방적인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토론하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면서도 “애초 빅문의 성격 규정 자체가 후마와는 다르게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빅문이 기존 후마의 교양교육과 다른 성격으로 설계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빅문이 필수교양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교과목의 학점도 조정됐다. 후마 교양교육연구소 편집위원장

인 이기라(사회학) 교수는 “학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빅문을 도입하려면 기존 강좌를 줄여 학점을 확보해야 했다”며 “그 결과 기존 2학점짜리 외국어 교과목 2개가 3학점의 ‘대학영어’ 1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과목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의 학점을 조정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마 역할에 대한 고민은 2024년 개편에서도 이어졌다. 학생들의 교양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분 이수 영역은 7개에서 5개로, 이수학점은 12학점에서 9학점으로 축소됐다. 시대 반영을 목적으로 한 AI·SW 관련 교과 확대도 있었다. 후마 행정실은 “졸업을 위해 필요한 총

학점이 줄어들에 따라 학생들의 교양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캠 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교육을 도입할 때 교양영역인 후마를 우선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학장은 “새로운 교과목을 도입할 때 전공 단위보다 교양영역인 후마를 다루기 편하거나 부담 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널을 게 있으면 후마에 넣고 뺄 게 있으면 후마에서 빼는 식”이라고 말했다. 전공에서 이수해야 할 교육과 후마가 담당해야 할 공통 교양교육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많은 학점을 배분할 것인지는 후마 출범 이후 반복해서 제기된 문제였다.

세 차례 개편의 문제는 결국 후마가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모호하게 했다는 데 있다. 후마 교수진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태다. 우 전 팀장은 “학생 수가 줄어 중·고등학교 수업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은 일방적인 강의만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양교육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신문이 지난 학기 교수 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도 후마 교육이 학생들에게 관심적인 필수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수 다수가 후마 교육이 관심적인 필수과목으로 전락했다는 데 동의했으며, 후마 제도와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도 82.5%에 달했다.

후마는 설립 초기 단순히 선택가능한 교양과목 제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후마 설립자이기도 한 조인원 이사장 또한 지난학기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문과 인간을 위한 후마 본연의 정신을 기억하되, 변신을 통해 문명사적 변화의 원리와 실천 방안을 찾아 나서는 후마의 생명력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특별기획] 조인원 이사장 인터뷰, “후마는 학문다운 학문의 초석을 놓는 일”/대학주보 1761호/2026.05.26.) 후마의 다음 교육과정 개편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후마가 어떤 교양교육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6 기획



#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후마의 15년 묵은 논쟁 상대 · 절대평가 넘어 교육철학에 맞는 기준 필요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⑦평가방식

#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전범(典範·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模範)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고자 한다. 이번 2부 3회차에선 학생들이 후마 교육의 꾸준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평가 방식’을 다룬다.

### 경쟁 중심의 ‘상대평가’ 체제 후마 철학에 걸맞는 평가방식 필요

후마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교양교육의 평가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몇몇 교과목을 제외하면 상대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지금의 후마에선 옆자리 학우를 제쳐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어떤 방식이 후마의 교육철학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양 캠퍼스의 입장이 엇갈려왔다. 서울캠을 중심으로

절대평가 전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국제캠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2011년 7월, 후마 설립위원이자 ‘시민교육’ 주임교수였던 우기동 교수는 시민교육의 절대평가 유지를 결정하며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현장활동이 일종의 실기평가가 되기 때문에 교과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절대평가제를 택했다”고 말했다. 2012년 5월엔 양캠 글쓰기 교과목의 평가방식이 달라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김동건 PD교수는 “글쓰기 교과 교육 목표는 학생의 자아성찰이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적합하다”며 “특히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글에 평가하는 ‘합평’은 경쟁원리를 통해서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교수들은 지향점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그에 맞는 평가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마는 교육 지향점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 대학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탐구활동과 정신 가꾸기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교육’, ‘계층과 신분, 종교, 지역 등이 벽을 넘어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능력’, ‘선의’와 배려와 공감의 공동체적 가치들을 체득하게 하고 사회봉사의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학교 교양교육

은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사유의 깊이를 키우는 데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를 두고 “교양은 한두 해의 학점을 따는 것으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학점 앞에서 학생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에선 더욱 그렇다. “장단점이 있지만 상대평가는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모두가 경쟁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김아현(일본어학 2023) 씨의 말처럼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대평가 체제에선 모두가 경쟁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 반복된 평가방식 전환 논쟁 양캠 의견차로 15년째 ‘답보’

후마의 평가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설립 초기부터 존재했다. 본격적으로 후마가 학생들을 만나기 1년 전부터 우려가 있었다. 2010년 후마 대학생위원회 김기웅(지리학 2004) 위원장은 당시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선호하며, 학점제도보다 ‘Pass/Fail’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보다는 교양교육의 취지에 맞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

다. 2012년 총학 선거 때 ‘교양 절대평가제 전면도입’ 공약을 내세운 후보도 있었다.

평가방식에 대한 양캠의 이견도 일찍부터 나타났다. 2012년 5월, 서울캠은 글쓰기 중핵교과를 절대평가로 확정했지만 국제캠은 글쓰기 상대평가를 유지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목이지만 양캠 학생들이 다른 방식으로 평가받게 됐던 것이다. 2013년엔 중핵교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주제로 중핵교과 운영위원회 교수 5명, 학생회 대표 5명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학생대표는 “학생 모두의 노력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선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진은 “절대평가 전환으로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4년이 지난 2017년, ‘후마 재도약을 위한 학생의견수렴 공청회’에선 이준태 교수가 “줄세우기는 후마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 절대평가와 Pass/Fai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캠 총학의 교양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선호했지만, 변한 건 없었다.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일회성 문제에 그치지 않았던 셈이다.

### 여전히 대다수 과목이 상대평가 줄 세우기에 답답한 학생들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마 교양과목은 일부 중핵교과를 제외하면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칙상 학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강좌에 한해 상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학기 우리신문의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여전히 학생들은 56.2%가 ‘후마와 같이 토론·글쓰기·성찰·실천을 지향하는 수업에 상대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상대평가는 제한된 비율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 학습 의욕을 꺾는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교양은 경쟁보다 각자가 얼마나 생각하고 표현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들이 느낀 불편함은 설립 초기 후마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현재의 평가체제에선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자신의 사고를 끄는 ‘지평융합의 원칙’,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는 ‘문제탐색의 원칙’이 포함된 후마 교과조직의 6대 원칙에 반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후마 수업에서는 결과보다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7면에 계속 →



후마 교양과목 대부분이 상대평가로 운영돼 학생들은 제한된 A학점 비율 안에서 성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학주보 DB)



2017년 9월 열린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을 위한 학생의견수렴 공청회'에선 교양 절대평가와 P/F제 도입이 논의됐다. (사진=대학주보 DB)

## 6면에서 계속 →

이 같은 수업에서 일정 비율의 학생을 A학점으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를 적용할 경우, 교육과정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평가 기준이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 예술 교과에서도 상대평가가 이뤄진다. 2023학년도에 '합창의 재발견'을 수강했던 고나현(정치외교학 2021) 씨는 "모두의 학점을 아는 건 아니지만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같은 노래를 불렀던 팀원끼리 서로 학점이 달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 '절대평가' 공감대는 있지만 선택은 도입 안 된다는 주장도

절대평가를 바라는 서울캠 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상대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건 학생을 선발할 때"라며 "대학 교육 영역에선 상대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교육학에서 의미하는 절대평가는 학생들이 설정된 교육 목표나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보통 생각하는 절대평가와 달리 학점 자체가 없다. 절대평가의 학술적 의미부터 짚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는 김 부학장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서울캠에서 글쓰기 교과를 가르

치는 고인환 교수 역시 교양교육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교수는 "학점 인플레이션과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보다는 교육의 목적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택은 절대평가 도입은 안 된다는 입장의 국제캠 후마 학장을 지냈던 김성수 교무처장은 학점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 특히 비전임 교원은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평가 시행 시, 후한 학점을 주는 경향이 높다. 그런 흐름에서 받은 높은 학점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무처장은 "평가가 의미 없다면 학생의 수업 태도는 좋지 않아진다"며 "체대로 된 수업 운영을 위해서라도 평가는 객관화가 되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캠 과학교과 김성 PD교수는 "코로나19 시절의 절대평가는 학점별 성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아니고, 학점 인플레이션도 있었다"며 "방향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만 확실한 기준안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캠에서 '인간의가치탐색'을 가르치는 고봉준 교수는 "상대평가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평가와 Pass/Fail제도 역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평가 점수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부터 없애야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이상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인환 교수 역시 "시간 강사들은 강의평가 점수가 낮으면 잘리기 때문에 학점을 잘 주게 되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 다른 대안 '역량평가' 주입식 강의 문제는 우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외에 꾸준히 언급되는 것이 역량평가다. 역량평가는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 등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습능력을 학생이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지속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기록하면서 평가하게 된다. "차라리 역량평가가 낫지 않겠냐"는 국제캠 김 교무처장은 "그동안 역량평가를 못했던 이유는 기업에서 학생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읽는 것보다 숫자로 나오는 학점만 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과목마다 구체적인 역량평가를 기술해두면 AI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역량평가가 옳긴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후마 김 부학장은 "역량평가가 좋지만 당장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역량평가야말로 확실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량평가는 교양이 아닌 전공에서 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학과별 인재상은 명확하지만 교양은 전공에 비해 덜 명확하기 때문이다. 김 교무처장은 "역량평가 역시 교양교육 교과목이 많은 우리학교 환경에선 어렵다"며 마찬

가지로 역량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교수의 일반적 강의가 주가 되는 현재 후마 대부분의 강의법 역시 역량평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수 혼자서 많은 수의 학생을 상대하고 있는 현재 구조에선 현실적으로 학생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우리신문의 설문조사에서 2학년 이상 재학생들 중 '후마 수업의 문제점으로 교수·과목별 편차가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65.2%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역량평가를 시행한들 성적의 객관성을 보장하긴 어렵다.

### 근본적인 문제는 양캠 후마 갈등 이론법적 사고 벗어난 '소통' 절실

현실적으로 역량평가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캠에선 후마의 교육철학과 교양수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제캠에선 평가방식의 변화가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캠퍼스 간 충분한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결국 절대평가 도입 여부만으로 논의를 끝낼 수 없다. 후마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육의 성취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논의가 15년 동안 반복됐음에도 양캠이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후마의 평가방식 논쟁은 결국 후마가 어떤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간다.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나 결과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양 캠퍼스가 후마의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그 철학을 실제 교육과 평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지금의 논쟁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만을 비교하는 이론법적인 구조다. 다만 평가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단순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가운데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가에 있지 않다. 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 양캠이 소통해야 한다.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평가방식 논의는 후마 내부의 '소통과 거버넌스' 문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평가방식에 대한 양캠의 이견이 왜 15년이 지나면서도 좁혀지지 않았는지, 후마의 주요 정책은 어떤 구조에서 결정되고 있는지는 다음 회차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 8 문화



헌책방처럼 책을 하나씩 살펴보면 예상하지 못한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청년들의 새로운 방문처가 되고 있다.

(사진=김가빈 기자)

# 읽는 것을 넘어 소비하기로 텍스트를 입고, 먹고, 찾고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 〈문화트렌드 연속 기획〉 ⑫ 텍스트힙 소비

# 청년·학생 문화 트렌드 열두 번째 기획으로, 우리신문은 20대 ‘텍스트힙(Text+Hip) 소비’ 현상을 살펴봤다. 최근 2026 패션 트렌드로 ‘포엠티어(시인의 감성과 지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패션)’가 떠오르고, 책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성행하는 등 텍스트힙을 소비하는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신문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텍스트힙을 소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독서 문화의 새로운 소비 ‘텍스트힙’

‘텍스트힙’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개성 있다’를 뜻하는 ‘힙’을 결합한 단어로 책과 글을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텍스트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재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책을 읽는 행위가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확장됐다.

책과 지적인 분위기를 패션으로 표현하는 ‘포엠티어(Poet Core)’가 대표적이다. 허석우(사회학 2025) 씨는 “지적인 이미지를 위해 옷을 차별하게 입기 시작했다”며 “SNS를 보면 책을 보고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이미지 공유 플랫폼 핀터레스트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핀터레스트 내 ‘포엠티어’ 검색량은 75%, ‘포엠티어 에스테틱(Poet Aesthetic)’ 검색량은 175% 증가했다.

책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도 등장했다. 지난달 21일 출판사 민음사와 GS25가 협업해 출시한 ‘민음사 빵’은 출시 3일 만에 5만 개가 판매되며 GS25 전체 빵 상품 매출 1위

에 올랐다. 김태균(사회학 2025) 씨는 “민음사빵을 사려고 편의점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갔지만 이미 품절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책의 내용뿐 아니라 출판사와 책이 가진 이미지까지 소비 대상으로 확장된 셈이다.

2026 패션 트렌드 ‘포엠티어(시인의 감성과 지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패션)’ (사진=시생성)

### ‘검색’ 대신 ‘발견’ 헌책방에서의 텍스트힙

텍스트힙은 오프라인에서 책을 소비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헌책방처럼 책을 하나씩 살펴보면 예상하지 못한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청년들의 새로운 방문처가 되고 있다. 신촌의 헌책방 ‘숨어있는 책’을 방문한 노유빈(경제학 2024) 씨는 “요즘 SNS에 헌책방 관련 게시물이 계속 뜬다”며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헌책방을 찾아가는 게 유행”이라고 말했다.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을 방문한 적 있는 강민서(응

용영어통번역학 2024) 씨 역시 “책이 쌓여있는 모습이 평소 정리된 서점 분위기와 달라 인상적이었다”며 “절판된 책이나 부모님 세대가 읽었던 인기 도서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양진(국어국문학) 교수는 “헌책방이 가진 레트로 감성이 ‘힙’하다고 여겨져 청년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헌책방의 희소성과도 맞닿아 있다. 김 교수는 “이전까지 헌책방에서 마케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며 “지금은 헌책방의 희소성에 근거한 마케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서 만난 이화여대 재학생 김경주 씨는 “청계천에서 책을 보다가 근처에 헌책방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찾아왔다”며 “온라인 서점에서 빠르게 찾는 방식과 달리 직접 책을 고르고 읽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고 말했다.

### 다시 텍스트를 찾는 청년들 앞으로의 독서는

청년들이 텍스트힙을 통해 다시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변화한 주변 환경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청년들이 책을 찾는 현상은 일종의 ‘반사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문적, 교육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세대가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됐다”며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다는 내적 갈등이 오히려 책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려는 반작용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 씨는 “고교 학창시절 대부분을 코로나로 보내며 필요한 지식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넘어갔다”며 “스스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연예인의 지적 이미지를 동경하는 현상도 청년들의 독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tvN 예능 ‘유크이즈 돈 더 블러’에서 추천한 도서 ‘초역 부처의 말’은 당시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도서 플랫폼 예스24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역 부처의 말’은 방송 방영일 기준 전일 대비 판매량이 1983.3% 가량 증가했다. 허 씨는 “작년에 장원영이 말한 책이 근처 도서관에서 대출하려고 했더니 예약까지 꽉 차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연예인이 지적인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며 “이러한 모습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청년이 독서를 하는 이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술대학이 그려온 60년…순수미술의 정체성 이어와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 미술대학(미대)이 60주년을 맞아 ‘설립 60주년 기념: Time Archive 60, 다시 선언하다’ 전시를 개최했다.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KUMA미술관에서 열린다. 우리신문은 이를 계기로 미대가 걸어온 60년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를 살펴본다.

## 변화와 도약의 60년 ‘창의성’과 ‘인간다움’을 추구

미대는 1966년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시작됐다. 교육과라는 명칭과 달리 3개 전공(동양화·서양화·조소)을 중심으로 작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후 1998년 창작 교육의 기반을 바탕으로 문리과 대학 미술학부로 개편됐으나, 이듬해에 정원 규모를 고려해 무용학과와 함께 예술학부로 편제됐다. 이후 순수미술의 독자적인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는 교수진의 요구에 따라 2003년 지금의 독립된 미술대학이 탄생했다.

전시 공간도 변화를 거쳤다. 1970년대 중앙도서관에 자리했던 ‘경희미술관’은 학생회관으로 이전해 ‘경희갤러리’로 운영되다 끝내 사라졌다. 한동안 전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던 미대는 2006년 현재의 KUMA미술관을 건립했다. 이후 KUMA미술관은 학생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외부와 교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학제 변화 속에서도 미대 교육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대 나형민(미술학) 학장은 미대의 정체성으로 ‘창의성’과 ‘인간다움’을 꼽았다. 그는 창의성을 “순수미술에 뿌리를 두되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인품이 작품에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학생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격도 도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앞으로 그려갈 60년 ‘문화세계의 창조’를 실천

미대는 순수미술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교육의 첨단화와 세계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12년에는 뉴미디어와 예술경영 트랙을 도입해 순수미술을 타 학문·산업 분야에 접목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학생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한 국제교류도 이어왔다. 독일·중국·홍콩·일본·미국 등의 대학 및 기관과 교환전시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난해에는 로마미술아카데미와 전공 연수를 진행했다.

나 학장은 “교내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세계의 창조’를 실천하는 일”이라 말했다.

그는 “미대가 구성원들의 일상동선과 떨어져 있어 아쉽다”며 “KUMA미술관이 산책 삼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람객이 미술대학 설립 60주년 기념전 ‘Time Archive 60, 다시 선언하다’를 감상하고 있다. (사진=김재희 기자)

## 한자리에 총망라한 60주년의 시간

미대는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Time Archive 60, 다시 선언하다’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전에는 현직 교·강사와 명예·석좌교수, 동문 작가, 재학생 등 138명이 참여했다.

미술관 1~3층에서는 경희미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동문종합전이, 4층에서는 경희대 출신 작가를 포함한 신진작가 35명의 특별전 ‘취향의 기록-오늘의 작가, 내일의 컬렉션’이 열린다.

전시에 참여한 이상열(석좌사통합과정 4기)씨는 “현재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의 작품과 더불어 대선배님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 “인간에겐 사랑을, 인류에겐 평화를”

이금화(경희기록관)

## 경희의 유산② 『평화의 전당』

# ‘경희의 유산’ 2차 연재를 시작하며-경희기록관은 2026년 가을학기부터 1년간 ‘경희의 유산’ 2차 연재를 이어간다. 이번 연재에서는 캠퍼스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 장소를 중심으로, 경희인의 삶과 추억,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을 소개한다.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이다. 매년 이날이 되면, 뉴욕 유엔 본부에선 ‘평화의 종’을 울리는 타종식이 열리고, 종소리에 호응하듯 전 세계 각지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모임과 행사가 이어진다. 1981년 11월 제36차 유엔총회를 통해 세계평화의 날이 제정된 이후, 경희도 이날을 기념하는 국제회의(2006년부터 ‘Peace BAR Festival(약칭 PBF)’로 확대)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벌써 45회째다.

그런데 이날을 만들자고 처음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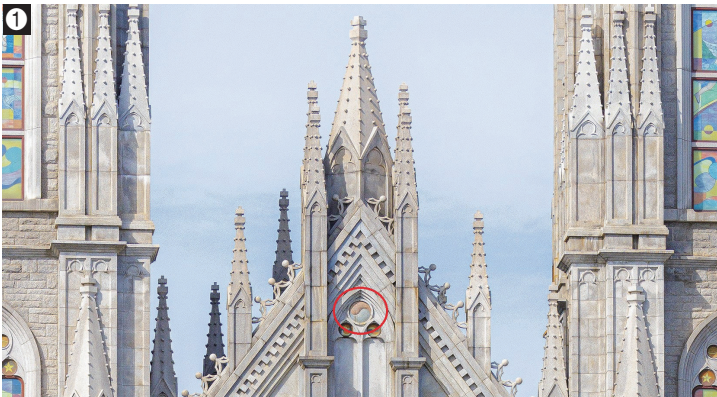
안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다. 경희가 세계평화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지 우리 대학이 제정에 기여했기 때문은 아니다. 설립 이래 우리 대학은 학문적 탁월성과 함께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실천적 노력을 중시해 왔다. 그래서 경희의 교가도 ‘은오한 학술 연구, 변전하는 세계의 진리 탐구’와 함께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자’고 호소한다. 학문과 평화는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두 축인 것이다.

평화를 중시하는 경희의 전통은 캠퍼스 곳곳에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평화의 전당이다. 서울캠퍼스 상징과도 같은 이 건물은 1999년 개교 50주년에 맞춰 문을 열었다. 총 4,500석(현재 4,250석)의 객석을 갖춘 평화의 전당은 개관 당시 아시아 최대 문화예술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졸업식, 입학식, PBF 같은 교내 행사는 물론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예술공연, 시상식도 자주 열린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종종 등장해서, 캠퍼스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사진에 담고 싶

어 하는 인기 장소이기도 하다.

화강석으로 마무리된 중세 고딕 양식의 건물 외관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성 미셸 성당을 모델로 했다. 건물 곳곳에 경희의 이상과 한국의 전통미를 상징하는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 평화의 전당 건립의 역사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큰 강당을 짓자는 구상이 이때 시작됐다. 1978년 5월 설계를 완성했고, 1981년 8월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다. 당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도 전례가 없는 대강당을 짓는 공사였다. 난관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거졌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83년 어느 날, 당시 우리 대학 바로 옆 이문동에 소재하고 있던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짓고 있는 건물 꼭대기 24.8m탑의 높이를 절반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강당이 완성되면 안기부에 보안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계속 공사를 어렵게 했다. ‘풍수지리상 국가 운명에 문제가 생긴다’,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건물 옥탑이



①건물 정면에 새겨져 있는 태극 문양(원부분). 서구적 외관에 한국적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 ② ‘비둘리아’ 대강당에 얹힌 궁금증을 소개한 대학주보 기사(1995년 3월 6일 자)

공격의 거점이 된다’ 등등.

1980년대가 어떤 시대인가.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엄혹한 시절이다. 결국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완성된 옥탑 석조물 일부는 철거됐고, 1986년부터 공사는 중단됐다. 다행히 1995년에 안기부가 내국동으로 이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근 10년간 평화의 전당은 짓다 만 어정쩡한 모습으로 권위주의 시대 굴곡을 상징하듯 캠퍼스 한켠에 묵묵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이 짓다만 대강당의 이름은 비둘리아관이 었다. 당시 유행하던 TV 광고 중에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알뜰한 비누라는 점을 강조한 “아직도 그대로



네!”라는 카피가 있었다. 그 비누의 이름이 비둘리아였다. 10년 가까이 짓다 만 모습 그대로인 건물.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 언덕 위를 바라본 졸업생들 입에서 “아직도 그대로네!”라는 탄탄이 나올 법도 하지 않은가.

올해로 평화의 전당이 완공된 지 27년이 된다. 로비에는 설립자의 휘호로 이런 문구가 걸려있다. “인간에겐 사랑을, 인류에겐 평화를.” 학문과 평화를 사랑하는 경희의 전통이 50년 후, 100년 후에도 아직도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캠퍼스에 살아 숨쉬길 소망해 본다.

# 야구부, 왕중왕전 8강에서 시즌 마무리 최태원 감독 “투지’ 보여준 한 해”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우리학교 야구부가 “2026 KUSF 대학야구 U-리그” 플레이오프 왕중왕전에 진출했지만 8강에서 연세대에 패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야구부는 올해 U-리그 B조에 편성돼 총 10경기를 치렀다. 6승 1무 3패를 기록한 가운데 정규리그 막판까지 왕중왕전 진출을 위한 경쟁을 이어갔다. 최태원 감독은 정규리그를 돌아보며 “올해 멤버들도 괜찮았고 성적을 내고 싶었던 해였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나지 않아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반기 이후 경기 운영을 되짚으며 “선수들을 좀 더 믿고 다양하게 써보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6월 5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호원대와의 왕중왕전 결정전에서 10-0으로 승리하며 왕중왕전 진출을 확정했다.

야구부는 지난 3일 열린 왕중왕전 첫경기 25강에서 김포대를 4-1로 꺾었다. 선발 박효재가 승리투수가 된 가운데 1회부터 상대를 무득점으로 묶으며 경기를 풀어갔다. 2회와 5회에 각각 한 점씩을 추가한 데 이어 8회 두 점을 더하며 승리를 거뒀다. 김포대는 8회 한 점을 만회했지만 야구부의 리드를 뒤집지는 못했다.

지난 6일 열린 16강에서는 같은 U-리그 B조에서 7승 2패로 1위를 기록한 강릉영동대와 맞붙었다. 강릉영동대가 초반부터 점수를 내며 앞서갔지만 야구부도 점수를 따라붙으며 한 점 차 승부를 이어갔다. 이후 상대의 추격을 한 점 차로 막아낸 야구부는 4-3으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최 감독은 16강을 회상하며 “같은 조 1등을 기록했던 팀이라는 사실은 중요치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심판의 판정에 흔들리지 말고 평소와 같은 냉정하게 우리의 스타일대로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왕중왕전 8강에



우리학교 야구부가 2026 KUSF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 8강에서 연세대에 패하며 올 시즌을 마무리했다. (사진=야구부 프런트 쿠라운드 제공)

실은 중요치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심판의 판정에 흔들리지 말고 평소와 같은 냉정하게 우리의 스타일대로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왕중왕전 8강에

선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하고, U-리그 A조에서 9승 0패를 기록해 1위를 기록한 연세대를 상대로 2-7로 패했다. 이로써 야구부는 왕중왕전 8강에서 시즌을 마무리지었다.

최 감독은 시즌을 돌아보며 타격

에서의 아쉬움을 언급했다. 그는 “타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다”며 “좋은 때와 안 좋은 때 그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올 시즌에는 타격의 흐름이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라오는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안 되고 끊겼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시즌이 더 쉽게 남은 것은 올해 4학년이 최 감독 부임 첫해에 입학한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최 감독은 “처음 왔을 때 입학했던 선수들이 4학년이 된 해라 목표를 갖고 시즌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해준 4학년들이 너무 고맙고, 나도 많이 배웠다”고 덧붙였다. 함께 뛰었던 선수들에게는 “정말 잘해줬는데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최 감독이 한 해 동안 선수들에게 거듭 주문한 것은 ‘투지’였다. 16강 강릉영동대전을 앞두고도, 8강 연세대전을 앞두고도 요구는 같았다. 상대가 누구든 평소 하던 대로, 팀의 승리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으라는 것이었다.

최 감독은 “마지막 대회인 만큼 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다”고 시즌을 돌아봤다.

## 아쉬운 ‘1점 차 패배’...농구부 후반기 1승 2패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 농구부가 ‘2026 KUSF 대학농구 U-리그’ 고려대전에서 69-70으로 패하며 후반기 1승 2패를 기록했다.

17일 있었던 고려대전은 전반부터 양 팀이 역전을 거듭하며 접전을 이어갔다.

3쿼터 들어 고려대의 외곽슛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한때 역전을 허용했지만, 4쿼터 손현창(스포츠지도학 2025)과 오벨레존(스포츠지도학 2025)의 연속 득점으로 다시 경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경기 종료 18.6초를 남기고 고려대에 역전 득점을 허용했고, 마지막 공격에서 손현창의 버저비터가 림을 외면하며 최종 스코어 69-70, 1점 차로 아쉬게 패했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12점을 이기고 있을 때 더 치고 나가지 못한 점과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결정적인 수비 리바운드를 잡지 못한 부분이 승부처였다”고 짚었다.

이어 “마지막 수비에서 리바운드를 강조하기 위해 큰 라인업을 구성



농구부가 지난 17일 ‘2026 KUSF 대학농구 U-리그’ 고려대전에서 69-70으로 패하며 후반기 1승 2패를 기록했다. (사진=도은오 기자)

했음에도 리바운드를 뺏겼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 역시 “리바운드를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같다”며 “후반에 리바운

드를 많이 뺏겨 아쉬운 경기였다”고 말했다.

주장 김수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마지막 슛을 놓친 손현창에게 “못 넣었지만 잘했다고

말했다”며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농구부는 지난 7일 후반기 시작 후 첫 경기였던 성균관대전에서는 54-63으로 패했다. 반면 두 번째 경

기였던 중앙대전은 후반기 세 경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경기였다. 농구부는 경기 중 한때 22점 차까지 뒤졌지만 4쿼터부터 추격에 나섰고,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다. 두 차례 연장 끝에 중앙대를 92-90으로 꺾으며 대역전승을 거뒀다.

김 감독은 이번 3연전에 대해 “강팀들과 대등하게 경기했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켜던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름 비시즌 동안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된 것을 보며 기대가 컸기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중앙대전 이후 팀 분위기에 대해 김 선수는 “극적인 승리 이후 팀 분위기가 확 올랐었는데 오늘 패배로 많이 가라앉은 것 같다”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려 남은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배 선수는 “중앙대를 힘들게 이기고 고려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는데 넘지 못해 모두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구부는 남은 세 경기에서 반등을 노린다. 김 감독은 “리바운드와 수비, 슈팅 적중률을 보완해 남은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오피니언

11

## 사설

## 수강 경쟁, 결국 부족한 교육기반

매 학기 수강신청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의 하소연이 들려온다. 듣고 싶은 강의를 잡기 위해 수강신청 시작과 동시에 '클릭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정규 수강신청 이후 정정 기간에도 학생들은 내내 수강신청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빈자리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고군분투해도 끝내 원하는 강의를 잡지 못해 차선책을 택하거나 다음 학기를 기약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런 모습은 어느새 대학에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우리신문에서 지난 학기 미디어학과·사회학과·국어국문학과와 전공 강좌를 집계한 결과, 같은 대학 안에서도 학생의 전공 수업 수강 여건은 학과에 따라 달랐다.

미디어학과는 재학생 683명에게 1,557석이 제공돼 학생 1인당

2.28석이 확보된 반면, 사회학과는 237명에게 1,145석으로 4.83석, 국어국문학과는 316명에게 1,709석으로 5.41석이 확보됐다.

물론 강좌의 성격과 수업 방식, 정원 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히 수치만으로 교육 여건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같은 대학 안에서 학과별 학생 규모와 수업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학과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수업마다 적정 수강 정원이 다르고, 과제와 학생·교수자간 상호작용이 많이 필요한 수업은 수강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원, 강의실과 같은 기반은 필요하다고 해서 즉시 늘릴 수도 없다.

결국 문제는 정원을 몇 명 더 늘릴 것인지에만 있지 않다. 재학생 수와 수업 수요에 맞춰 교원과 강

좌, 강의실 등의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학과에 '증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학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면 대학 차원에서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년도 입학생부터 다전공 이수가 의무화되며 학생들의 수강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도 있다. 특정 학과의 수업 수요가 증가할 경우 지금과 같은 강좌 정원과 공급 구조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따져보고, 제도 확대에 맞춰 교원과 강의실 등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수강신청은 단순한 클릭 경쟁이 아니다. 전공필수 과목이라면

졸업 요건과 직결되고, 전공선택 과목이라면 학생이 자신의 학업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해 학업 계획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순 없다.

모든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원하는 시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전공필수 과목을 듣지 못해 다음 학기를 기다리고, 몇 날 며칠을 수강 정정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수강신청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 수요에 맞는 교원과 강좌,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대학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수강신청을 '올클'하는 요령이 아니라, 수강신청에 실패하지 않을 충분한 교육 기반이다.

## 세시봉

## 엇갈린 10분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과정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원서 접수 대행기관인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모집 마감 10분 전 일부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수험생 시절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하려 입학처 홈페이지를 새로고침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수시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고등학교 3년, N수를 더한 경우라면 그보다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혹자는 "경쟁률은 숫자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소신 있는 지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험생에게 경쟁률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나는 매일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하며 지원 학과를 바꿀지 고민했고, 숫자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다. 소신을 지키라는 말이 응원 이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불안을 감당하는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올해는 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임시인 만큼 N수생 규모가 역대급으로 늘었다. 실제로 2027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졸업생 비중은 지난해 28.9%에서 올해 31.5%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마감 전 10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학생 간 형평성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사태의 발단은 원서 접수 시스템이다. 수시는 매년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이용하는 대입의 핵심 절차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여태껏 원서 접수 시스템을 민간업체에 의존해왔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지나간 혼란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수험생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공적 원서접수 체계 검토를 포함해 대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수험생에게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공정한 입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면, 국가가 지켜야 할 책임도 있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지속되는 후마 평가방식 논의

## 질문을 바꿔봅시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평가 방식을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였다. 학생도, 교수도, 과거 우리신문 기사도 결국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무엇이 더 나은지에 집중했다. 자연스레 취재를 시작할 땐 둘 중 무엇이 후마의 교육철학에 더 적합한지 알아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취재를 이어갈수록 둘 다 후마에 적합한 평가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재 후마 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대평가는 깊게 사유하는 공동체적 인간을 기르겠다는 후마의 지향점에 맞지 않았다. 절대평가는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교강사 강의평가 문제로 학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었다.

지난 15년의 논의를 돌아보면 우

리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무엇이 더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해왔다. 하지만 정작 후마 교육의 성취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려 있었다. 평가방식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데, 어느 순간 수단을 선택하는 일이 목적을 논의하는 것보다 앞서게 된 셈이다. 여러 교수를 만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지금의 방식이 후마의 교육 목적에 적합하다고 말하는 교수는 아무도 없었다.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엔 모두 공감했다.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교수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교수도 결국 더 나은 교육과 평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15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면 이제는 질문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가 아니라 '후마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후마가 추구해온 교육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평 옳은 길을 찾아가야 할 후마 평가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

## 12 사람



흙 토(土), 나무 목(木). 토목을 연구하는 이호영(박사 2기) 씨는 우리신문의 사진 요청에 “나무라도 한 번 잡아볼까요?”라며 재치있게 답했다. 그는 토목(土木)이라는 학문 이름처럼 연구와 삶의 가운데서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나가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 삶의 기반을 지탱하는 학문 연구와 일상의 궤적을 그리다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 공부하는 사람들 ⑥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전공

# 학부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 앞에 선다. 이중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삶’은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사회 공공재가 된다. 대학주보는 이들 ‘공부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여섯 번째 주인공은 기반재해와 지오시스템을 연구하는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이호영(박사 2기) 씨다.

### 삶과 가장 가까운 학문 어린 시절 질문에서 시작하다

사회기반시스템공학(전신 토목공학)은 사람들의 일상을 떠받치는 학문이다. 도로와 다리, 터널 등 사

회기반시설은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오가는 이들의 안녕을 지킨다. 이 씨는 “기반시설을 다루는 학문인 만큼 사람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분야”라며 “공공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목공학을 향한 그의 호기심은 어린 시절 거제도도 떠난 가족여행에서 시작했다. 거가대교와 해저터널을 지나며 어린 이 씨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번졌다. 특히 바다 밑에 길을 내겠다는 발상은 낯설고도 신기했다.

그는 “토목이라는 분야를 처음 인식하고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였다”고 회상했다.

유년 시절의 호기심은 대학 진학 후 현실적인 연구 의지로 발전했다. 학부 시절 산업연계 인턴십을 경험하며 현장 실무의 벽을 느낀 것이 전환점이 됐다. 이 씨는 “현장에 나갔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며 “의견을 피력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 필

수임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전문성에 대한 열망을 안고 진로를 고민하던 때, 전국 각지에서 도심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싱크홀의 발생 원인과 지반 보강 기술에 의문을 품은 그는 지반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우리학교의 ‘지반재해&지오시스템 연구실’의 문을 두드렸다.

### 명확한 답을 향한 탐구 삶과 실용성에 집중하다

이 씨의 연구가 향하는 곳은 결국 사람들의 삶이다. 이 씨는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편의와 시간을 확보하고 싶다는 마음이 연구를 이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며 “연구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보다 토목공학의 근본 목적에 따라 사람의 삶을 편리하고 이롭게 하는 일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석사 과정에서 이 씨는 건설 현장의 주요 자재이자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시멘트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체 건설재료인 ‘지오폴리머(Geopolymer)’를 연구했다.

연구는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공장 and 협업체도 보도블록과 보강도 블록 시제품 제작으로 이어졌다. 이 씨는 “개발한 재료가 실물 블록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내 노력이 대중의 안전과 환경 보호로 직접 연결된다는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사 과정에 들어선 뒤에는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AI)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현재 이 씨는 수많은 시각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굴착면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그라운드 앵커’의 이상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그는 “위험 현장에 사람이 직접 투입되는 부담을 줄이고, 이상 상태를 한발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삶과 인생의 균형을 찾아서 순간의 최선을 쌓아가다

공부를 이어가면서 이 씨가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나이에서 오는 압박감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다. 서른을 앞둔 지금은 그에게 현재는 연구뿐 아니라 삶의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정해진 시간에는 연구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운동을 하거나 가족·연인을 만나며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대학원 생활은 연구에 오랜 시간 몰입해야 하는 만큼 일상이 연구에 매몰되기 쉽다”며 “연구할 때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결혼이나 진로, 가족처럼 지금의 내가 해야 할 고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로서 보내는 하루와 한 사람으로서 이어갈 인생이 나란히 걸어가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된 공부를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 역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라고 했다. 이 씨는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내 의견을 큰 프로젝트에 담아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첫 번째 원동력이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원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역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라고 전했다.

대학원생의 길은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에, 계속 고개를 들어 자신이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려 하면 불확실성과 걱정이 커질 수 있다. 이 씨 또한 컴퓨터비전 기술을 가르쳐준 선배 연구자의 조언에 따라 시간을 버티는 태도를 배웠다. 이 씨는 “너무 먼 미래를 조바심 내며 바라보다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긴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라며 “그렇게 하루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빛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